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실적 달성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로 상승추세 유지 EU·美 등 전통투자국의 증가세 견조·중국 투자 급증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2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직접투자는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상승추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도착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년대비 20.9% 늘어난 163억9000만 달러를 시현했다. 신고 실적은 지난해 4분기부터 외국인투자의 상승모멘텀을 유지하며 올해 2분기까지 157억5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3~4분기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실적을 이어갔다. 도착 실적도 상반기까지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했다. 3~4분기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연간으로는 역대 두 번째 실적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 투자가 전년대비 26.9% 증가한 89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고위급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유럽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적극 홍보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투자는 58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8% 증가했다.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에 자본투자를 통해 제3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 등 합작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중국 투자는 27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8.9% 급증했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고위급 IR을 통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현실화해 역대 최대실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일본 투자는 13억 달러로 전년대비 29.4% 감소했다. 이는 한국 수요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수요 감소, 화공·전기전자 분야의 설비투자 주기(3~5년) 영향

일본 내 자체 설비투자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대비 38.9% 증가한 100억5000만 달러로 전체 외투의 37.4%를 차지했다. 국내 대기업과의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했다는 게 특징이다. 운송용기계(+465.9%), 기계장비·의료장비(+68.8%), 식품(+36.0%), 비금속광물제품(+48.9%) 등은 늘어났으나 화공(-37.7%), 전기·전자(-10.3%), 금속·금속가공제품(-33.4%) 등은 줄었다.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4% 늘어난 155억8000만 달러로 전체 외투기업의 57.9%를 점유했다.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정보기술(IT)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금융·보험(+13.8%), 정보통신(+135.6%), 사업지원·임대(+156.1%) 등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12.8%), 도·소매(유통)(-21.5%), 숙박·음식점(-50.5%) 등은 감소했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땅을 구입해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은 신고 기준, 27.4% 증가한 200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 분야의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신성장산업 분야로 투자영역이 확대됐다. 인수·합병(M&A)형 투자는 합작투자 증가로 신고기준 4.9% 감소한 68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M&A는 감소했지만 1억 달러 이상 M&A는 53억 달러로 전년(47억 달러)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상승 또는 감소 추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며 "산업부는 고위급 투자유치설명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분기 외투기업의 날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신후국원을 찾아 신년 참배 행사를 했다.

'선죽제인' 자세로 힘차게 시작

NH농협은행 전북, 임신후국원 참배 행사 가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임신후국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신년 참배 행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3월 임신후국원과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묘역을 찾아 묘역 정비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르고 있다.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2019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은행 임신후국원을 시작으로 현장 경영을 펼쳤다. 이는 영업점 일선의 고충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침체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협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김 본부장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앞서 김 본부장은 선죽제인(先則制人) 자세로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2019년 경영전략 워크숍'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올해도 농민이 자랑스러워하고 도민과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직원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주는 농협은행을 만들겠다"며 "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농협 금융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北 시장화 진전 위해 한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KDI, '북한경제리뷰' 발간...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 방안 토론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남북경협과 하나의 시장 형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KDI 북방경제연구실·국가안보정책연구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밀로부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북한의

가계 중 70%가량이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은 사회주의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시장화가 진행됐다는 평가다. 조 원장은 "북한의 시장화는 자생적으로 진행됐으며 그대로 뒤도 계속 진전될 것이므로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북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장 폐지 등 계획경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제도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낭비하는 '지대 추구'(rent seeking) 현상이 나타

나거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남북 하나의 시장 형상에 부정적이므로 한국이 개입·지원에 나서 북한의 시장제도가 이룬 시간 안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 원장은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시장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수 권력층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개인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이기주의로 타락한 천민자본주의로 연결되거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황금민증주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장화 진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원장은 "북한 시장화에 한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한다면 북한의 인권

향상, 민주적 제도의 도입 및 확산, 일반 주민의 복지 증진 등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향후 남북경협을 구상할 때 북한의 시장화를 전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으로 연결해나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대북(對北) 독자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인에게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남북 경협 관련 한국 독자 제재나 유엔(UN)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미국 제재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홍남기 "광주형일자리 모델화해 시범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일반 모델을 올해 설정해 전국에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중견기업 와이자·원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인력 충

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4일 인사청문회 당시 광주형일자리 모델 일반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후 첫 언급이다. 이날 홍 부총리와 마주한 송호근 와이자·원 회장은 상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 쉬운 부평 공장과 달리 추위에 위치해 있는 공장에선 100명 규모의 노동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토론했다. 그는 "실업률이 최고치인 데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전통 산업체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을 찾는 구직자들이 많지 않다"며 "전국적 단위의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을 언급하며 "정보 교류뿐 아니라 주거, 교육, 청년 문화 문제 등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문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광주형 일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세워 사업을 할 때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비용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소외 아동에게 희망을'

전북은행, '희망키트' 전달식 가져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3일 전북은행 본점 3층에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희망키트 나눔'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희망키트'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을 위해 신학기에 필요한 물품을 상자에 담아 구성한 것이다. 전북은행은 지역사회 소외아동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 실천에 앞장서고자 임직원들이 급여 1%를 기부해 마련한 성금으로 희망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희망키트 소외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색연필, 스케치북, 필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총 11종의 문구용품으로 구성했다. /김영태 기자



전달식에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로 나선 대학생 봉사단 20여 명도 참여했으며, 이들은 직접 포장한 희망키트 250상자를 도내 29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사랑을 담은 희망 키트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